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2019년 11월 29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기획과 과장 이경일(054-912-0701), 김희진 연구관(0716)/제공일: 11월 28일(총 7매)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농림축산검역본부 국제 표준실험실, 동물질병에 대한 다양한 협력모델 제시!

- 조류인플루엔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표준실험실 인증 요청 -

《 주 요 내 용 》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 등 7개 질병**에 대한 세계동물보건기구(OIE) 표준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2월말에 조류인플루엔자 표준실험실 인증을 요청**할 예정임

◇ 검역본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표준실험실의 활발한 네트워크, 축적된 진단 기술연수, 기술자문 등을 매개로 **개도국에 지속가능한 수의분야 국제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음**

◇ 향후에도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국가재난형질병의 세계동물보건기구(OIE) 표준실험실의 기능 강화 및 국제협력을 통하여 검역본부는 세계적 수의연구기관으로 도약할 것임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현재 구제역 등 7개 질병의 세계동물보건기구(OIE) 표준실험실*을 인증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12월에는 조류인플루엔자 표준실험실 인증을 요청할 예정이다.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표준실험실 : 해당 질병과 관련하여 모든 과학적, 기술적 문제해결을 OIE에서 운영하는 제도. 회원국의 진단검사 의뢰 시료에 대한 최종진단, 진단표준품 및 진단액 개발·보급 등 회원국의 과학적 기술자문 및 교육·훈련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실험실(연구기관)**

○ 검역본부는 브루셀라병(2009년), 뉴캣슬병(2010년), 사슴만성소모성질병(2012년), 광견병(2012년), 일본뇌염(2013년), 구제역(2016년), 살모넬라증(2018년)에 대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OIE) 표준실험실을 운영 중이다.

❑ 검역본부의 세계동물보건기구(OIE) 표준실험실*은 최신 동물질병 진단법 개발과 국제표준법 등재 같은 성과 창출과 함께 국제공동연구, 전문가회의 주관, 회원국 방역기술지원 등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 2012년부터 실시된 OIE 회원국(베트남 등 16개국 107명)에 대한 국가동물방역·질병진단 실무자 교육은 단순한 기술 전수와 공동연구 수행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개도국 간에 지속가능한 기술협력 사례들을 창출하고 있다.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표준실험실 국제협력 사례 : [붙임 2] 참고**

○ 특히,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와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제 원조 사업(2014~2018)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선진국 OIE 표준실험실이 개도국 실험실을 본격 육성하는 제도(트위닝*)를 실시하기로 2019년 OIE 총회에서 양국 대표단이 합의했고, 미얀마 축산수의부와는 자립형 구제역 정밀진단체계 구축을 위한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 연수사업(2018~2020)을 수행하고 있다.

* 트위닝(Twinning): [붙임 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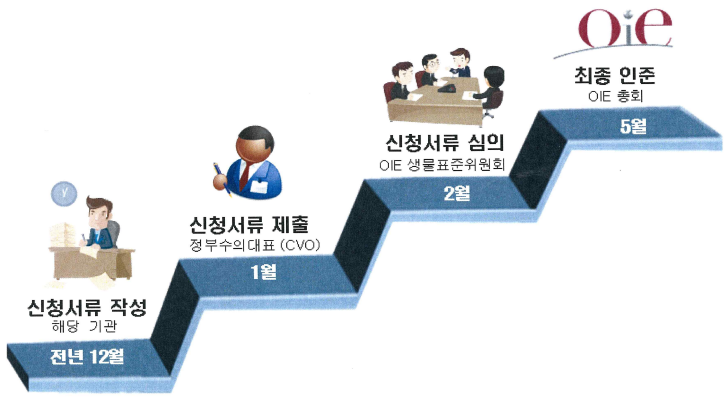
○ 또한, 2018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으로 선정된 '구제역 혈청형 3종 동시감별 현장 진단키트'는 실무자교육 참가국인 몽골과 베트남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2019년 구제역 국제기구 표준실험실 전문가 회의(12.3.~5.)가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박봉균 검역본부장은 "경제·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질병의 진단과 방역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세계동물보건기구(OIE) 표준실험실을 더욱 지원할 계획"이며,

○ "향후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실험실 인증을 받게 되면, 국경을 초월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동물질병의 체계적 국제공조로 국가재난형질병의 근절과 발생 억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세계동물보건기구(OIE) 표준실험실 및 트위닝(Twinning)

❑ 표준실험실 인증절차



❑ 검역본부 OIE 표준실험실 현황

질병명	OIE 전문가	시기	주요성과
브루셀라병 (Brucellosis) *B. abortus*	허 문 (Moon Her)	'09.5.	카자흐스탄 담당자 연수 ('17) 다종, 백신주 동시진단 PCR법 OIE 등재 ('16) 국내 모니터링으로 질병 발생율을 낮춤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12)
뉴캣슬병 (Newcastle Disease)	최 강 석 (Kang-Seuk Choi)	'10.5.	이집트 가금수의학회 초청 발표 ('16) 베트남에 표준양성항원, 항체 보급 ('15) 방역기관 정도관리 교육 실시 ('11~) 2011년부터 국내 비발생 유지
사슴만성소모성질병 (Chronic Wasting Disease)	손 현 주 (Hyun-Joo Sohn)	'12.5.	프리온학회 평가위원 참여 ('19) 태국, 베트남에 진단표준품 보급 ('17) BSE 위험무시국 지정으로 수입조건 강화 ('14)
광견병 (Rabies)	양 동 군 (Dong-Kun Yang)	'12.5.	말레이시아 초청으로 현지 교육훈련 실시 ('19) OIE 요청으로 아시아 광견병 근절전략 제시 ('18) 싱가폴에 표준양성항원 보급 2회 2014년부터 국내 비발생 유지
일본뇌염 (Japanese Encephalitis)	양 동 군 (Dong-Kun Yang)	'13.5.	홍콩 농림부 요청 교육 훈련 ('19) OIE 매개체질병 워크숍 등 초청발표 ('18,'19) 국내 혈청검사 진단액 개량 적용
구제역 (Foot and Mouth Disease)	박 종 현 (Jong-Hyeon Park)	'16.5.	FAO, 동남아등 8개국에 3종키트 시범보급 ('1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18) 미얀마와 KOICA 글로벌 연수사업 수행 중 ('18~)
살모넬라증 (Salmonellosis)	강 민 수 (Min-Su Kang)	'18.5.	지자체 살모넬라 동정 교육 ('19) 러시아측과 트위닝 협의 중

❑ OIE 트위닝(Twinning)이란?

○ OIE 본부의 심사와 승인 후 예산 지원을 받아 선진국 OIE 표준실험실(페어런트)과 개도국 실험실(캔디데이트)간 기술교류와 교육을 통하여 약정기간 (1~3년) 동안 신규 OIE 표준실험실로 지정되게끔 지도하거나 해당 개도국의 동물질병 진단능력 역량강화를 실시하는 제도

– 32개 프로그램 완료, 43개 프로그램 진행 중 (2019.5. 기준)

○ **(기대효과)** OIE 트위닝을 통해 검역본부의 진단 및 교육역량 수준을 회원국에 알릴 수 있어 기관 및 국가이미지 제고

❑ OIE 트위닝 절차

○ 기관 간 참여사전 협의 후 OIE 의견조회

– 페어런트 기관장, CVO(최고위직 정부수의사) 명의의 서신이나 프로젝트 요약서를 OIE 본부와 참여국 OIE 대표에 전달

○ OIE에 서류제출

– 프로젝트 제안서, 상세계획서, 예산계획서, 양측 참여기관장 서명 공식서한 및 기관장, 책임자(전문가)들의 이력서

○ OIE 심사(반기별 개최) 후 승인통보

– 2월 제출시 같은 해 10월에 승인여부를 페어런트 기관에 통지

– (주요심사기준) 예산책정, 트위닝 목적 및 구체적 달성방안, 일정 및 진행계획, 페어런트 기관의 전문성, 예상위험 분석,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등

○ 트위닝 실시 및 보고서 제출

– 캔디데이트 기관에서 워크숍 실시, 양국간 인턴쉽, 학술발표, 기술훈련 실시 후 연례 및 최종 보고서 제출

붙임 2 세계동물보건기구(OIE) 표준실험실 국제협력 사례

《 [사례 1] 베트남 ODA - 국제기구(OIE) 사업연계 》

○ 2012년 제1차 실무교육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검역 및 수의발전 국가중장기전략(2012~2020)"을 수립하고, 중기발전 전략 중 하나로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NCVD)의 이전 및 신축을 계획했다.

–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에 해당 사업 지원을 요청하여 베트남 최초의 수의분야 ODA사업인 "베트남 NCVD 신축 및 진단기술 연수사업(2014~2018)"을 실시하게 되었다.

– 이 사업은 신규 연구시설 건축 외에도 생물안전시설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검역본부의 기술컨설팅, OIE 표준실험실을 주축으로 한 질병진단 전문가 파견교육 및 한국으로의 초청연수로 구성되었으며, 2018년 준공식은 현지 언론에도 보도가 될 만큼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 사업 종료 후, 베트남 농업당국의 적극적 요청으로 올해 5월에 개최된 제87차 OIE 총회에서 국제기구인 OIE의 예산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실험실의 본격 양성제도인 트위닝*을 실시하기로 협의하여 검역본부–NCVD간 기술협력과 상호활용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	검역본부 ODA사업 기념비
	

《 [사례 2] 미얀마와의 한국국제협력단사업 추가 수행 》

○ 구제역 상시 발생국인 미얀마는 한국국제협력단사업으로 2013년 네피도(Nay Pyi Taw) 지역에 구제역 진단을 할 수 있는 생물안전2등급 시설을 건립해, 구제역 진단을 위한 시설은 갖추었으나, 네피도 센터 내 정밀진단 인력의 역량이 부족하여 구제역진단 거점 실험실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

- 2017년 검역본부 동물질병진단 실무자교육에 초청받아 참석한 미얀마 관계자의 발표를 통해 현지사정을 접한 검역본부 구제역 OIE 표준실험실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글로벌 연수사업을 추가 신청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얀마 구제역 관리 및 진단역량 강화사업”을 수행 중이다.

- 네피도 센터에 정밀진단 현지 전문가를 양성하여 미얀마에 자립적인 구제역 진단체계가 정착되어 수행되는 것이 사업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 검역본부는 매년 한국에 미얀마 실무담당자(연인원 21명)를 초청하여 3주간 교육하는 동시에, 한국의 전문가를 매년 네피도 센터에 직접 파견하여 총 45명의 미얀마 공무원에게 시료채취부터 진단 후 폐기방법까지 미얀마 현지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교육 외에도 손쉽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도록 검역본부가 개발한 구제역 항원항체 진단키트를 제공하였으며, 글로벌 연수사업 후에도 검역본부는 지속적으로 국제공동연구, 진단시료 숙련도 평가 등으로 미얀마의 자립형 구제역 정밀진단체계의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네피도 구제역 진단센터 전경	네피도 진단센터 교육 사진
	